『새한영어영문학』(2026) DOI: 10.25151/nkje.2026.68.2.005
제68권 2호 ▌119~148 ▌

전략적 침묵과 우회적 발화: 『이니쉬만의 크리플』의 장애와 증언

이 인 경

Lee, InGyeong. "Strategic Silence and Fabricated Speech: Disability and Testimony in *The Cripple of Inishmaan*."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8.2 (2026): 119-148.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disabled protagonist Billy in Martin McDonagh's *The Cripple of Inishmaan* (1996) emerges as a testimonial subject through strategic silence and fabricated speech. Approaching the play through the ethics of disability representation, and drawing on disability studies, affect theory, and trauma theory, it argues that Billy's silence and false declaration of imminent death function as performative acts that negotiate speech within a community structured by stigma and exclusion. Rather than reducing disability to narrative prosthesis or individual lack, Billy is situated within communal gazes and biopolitical hierarchies that render his life only conditionally grievable. His illness thus operates as an affective form of testimony whose force lies less in factual truth than in its capacity to expose the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recognition and care become possible. Conceptualizing subjectivation as an affective process between silence and articulation, Billy's fragmented speech sustains an ethical tension in which silence and testimony coexist. Ultimately, the play reveals how disabled suffering becomes only precariously legible within a community that resists witnessing it.

(Yonsei University)

Key Words

The Cripple of Inishmaan, disability studies, testimony, silence, affective subjectivation

www.kci.go.kr

Ⅰ. 서 론

문학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재현이 언제나 윤리적이거나 주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은 문학과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타자화되어 왔으며, 그 존재는 감동을 유발하는 장치로 소비되거나 서사의 긴장을 강화하는 기능적 수단으로만 동원되었다. 데이비드 T. 미첼(David T. Mitchell)과 샤론 L. 스나이더(Sharon L. Snyder)는 이러한 관행을 "내러티브 보철물"(narrative prosthesis)이라 명명하며, 장애가 "문학적 플롯이 그 표현력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목발과 같은 장치"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49). 이때 장애인의 몸은 비정상성의 은유로 치환되며, 그러한 재현은 장애를 둘러싼 현실의 격리·배제와 맞물려 그것을 자연화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서사 구조는 장애인을 자기 삶의 이야기 주체로 세우기보다, 서사를 지탱하는 장치로 고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마틴 맥도나(Martin McDonagh)의 『이니쉬만의 크리플』(*The Cripple of Inishmaan*, 1996)은 이러한 장애 서사의 관습을 반복하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교란하는가? 더 나아가, 맥도나의 장애 서사는 또 다른 방식의 소비와 희화화를 수행하는가, 아니면 장애 재현의 윤리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가? 맥도나의 희곡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아일랜드 민족주의 및 '서부성'(westernness)의 패러디, 블랙코미디와 폭력적 유머의 윤리, 공동체 내부의 냉소와 배제 구조에 초점을 맞춰 왔다.[1]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장애 재현 자체의 윤리적 구조

1) 민족주의 담론의 패러디로서의 맥도나에 대해서는 니콜라스 그린(Nicholas Grene)의 『아일랜드 드라마의 정치학』(*The Politics of Irish Drama*, 1999)과 라이오넬 필킹턴(Lionel Pilkington)의 『20세기 아일랜드의 연극과 국가』(*Theatre and the State in 20th-Century Ireland*, 2001)를, 블랙코미디 전략과 관객 윤리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먼 조던(Eamonn Jordan)의 「익숙한 것의 충격: 마틴 맥도나의 드라마」("The Shock of the Familiar: Martin McDonagh's Drama," 2006)와 패트릭 로너건(Patrick Lonergan)의 『연극과 세계화』(*Theatre and Globalization*,

www.kci.go.kr

나 빌리의 침묵과 거짓말이 수행하는 주체화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장애가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호명되고 규율되는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인물이 어떻게 발화의 자리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 『이니쉬만의 크리플』이 장애를 단순한 내러티브 보철물로 기능시키는 구조를 답습하면서도 그 구조를 내부에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일랜드 서부의 외딴섬 이니쉬만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의 주인공 빌리 클레이븐(Billy Claven)은 선천적인 신체장애를 지닌 고아로, 케이트(Kate)와 에일린(Eileen) 두 이모와 함께 살아간다. 그는 '크리플 빌리'(Cripple Billy)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공동체 안에서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던 중 이웃 섬 이니쉬모어(Inishmore)에서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보비(Bobby)가 이를 거절하자 빌리는 폐렴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여 동정심을 유도하고, 결국 섬을 떠나 할리우드로 향한다.

그는 할리우드 촬영에 참여하기 위해 섬을 떠나지만, 결국 영화에 캐스팅되지 못한 채 다시 이니쉬만으로 돌아온다. 귀환 이후에도 빌리의 몸은 여전히 '절름발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며, 공동체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떠남과 실패, 돌아옴의 과정을 거치면서 빌리는 이모들과 헬렌, 보비 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좌절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침묵과 거짓말은 이전과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서사는 '출발-시련-귀환'이라는 고전적 구조를 따르며, 장애를 극복의 서사로 변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빌리의 여정이 단순한 극복이나 회복(restitution)의 이야기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끝내 '정상'이 되지 않으며, 공동체

2009)를, 공동체 풍자와 냉소적 사회성에 대한 독해로는 앤서니 로시(Anthony Roche)의 『현대 아일랜드 드라마』(*Contemporary Irish Drama*, 2009)의 관련 논의를 각각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을 장애 서사의 윤리적 전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장애를 둘러싼 응시와 낙인, 그리고 생명 가치의 위계 속에서 빌리가 어떻게 말할 자리를 획득하려 하는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빌리의 몸은 공동체 안팎의 경계 위에 놓인 존재, 곧 보호와 애도의 대상에서 유예된 리미널(liminal)한 생명으로 드러나며, 이는 생명정치가 장애인의 생존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건화하는지를 묻는 장면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빌리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의 침묵 역시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떠오른다. 빌리의 침묵은 결여나 무능의 징후가 아닌 말할 수 없고 말해지지 않았던 정동이 축적되는 장으로 기능하며, 훗날 거짓말과 고백의 형태로 표면화되는 조건을 이룬다. 이처럼, 그는 공동체의 시선에 종속된 채 머무르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는 허구적 진술을 통해 서사에 개입한다. 이 행위는 단순한 기만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말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가? 아서 W. 프랭크(Arthur W. Frank)는 『몸의 증언』(*The Wounded Storyteller*, 1995)에서 고통받는 몸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윤리적 주체로 회복되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퀘스트 서사"라 개념화한다(117). 퀘스트 서사는 "아프다는 것의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Frank 117)을 의미하며, 이때의 질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115)이 된다. 빌리의 서사는 이 구조를 부분적으로 따른다. 그는 고립된 장애인으로 시작하지만, 떠남과 귀환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욕망을 발화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그러나 그의 말하기는 완결된 자기 회복의 서사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말해질 수 없음과 말하려는 충동 사이의 긴장을 전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빌리의 발화는 단순한 자기표현을 넘어 '증언'(testimony)의 차원으로 사유될 필요가 있다. 쇼샤나 펠먼(Shoshana Felman)과 도리 라우브(Dori Laub)는 증언을 "말해질 수 없고 언어로 구성될 수도 없는"(xviii) 대상을 향해 수행되는 언어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사실의 보고가 아니라 존재의 위기를 감행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한다. 증언은 경험의 완전한 재현이 아니라, 재현 불가능성을 전

www.kci.go.kr

제한 채 타자 앞에서 말하기를 시도하는 사건인 것이다.

물론 펠먼과 라우브의 증언 개념은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 역사 폭력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를 장애 경험과 동일한 층위에서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의 논의는 말해질 수 없는 고통이 완전한 재현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타자 앞에서 발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빌리의 불완전한 말하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원을 포착하기 위해 본 논문은 증언 이론과 더불어 정동 이론(affect theory)을 참조한다.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가 지적하듯, 정동은 의미화되기 이전의 강도(intensity)로, 아직 정서적·기호적 형식으로 포획(capture)되지 않은 자율적 차원에 속한다(27–28).[2]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론적 긴장이 개입한다. 펠먼과 라우브가 말하는 증언은 타자의 청취 가능성을 전제하는 발화의 행위로, 언어를 통해 관계적 응답을 요청하는 수행이다. 정동이 전(前)언어적 차원의 강도라면, 증언은 언어적 매개를 통해 구성되는 사건인 것이다. 이 둘은 동일한 차원에서 단순히 연속될 수 없으며, 빌리의 발화를 정동에서 증언으로 직선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론적 비약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동이 어떻게 언어화되는가가 아니라, 완전히 번역될 수 없는 정동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 속에 잔존하는가에 있다. 빌리의 거짓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읽힐 수 있다. 그것은 정동을 소거하는 언어화라기보다, 언어의 형식을 빌려 정동의 과잉을 비스듬히 드러내는 수행이며, 말해질 수 없음과 말해야 함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전략적 발화이다. 따라서 빌리의 발화는 전언어적 강도로서의 정동이 언어적 증언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못한 채 잔존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정동과 증언은 동일한 층위가 아니라, 서로를 불완전하게 가로지르며 의미를 생산하는 두 차원으로서, 빌리의 침묵·멈춤·거짓말을 읽어내는 핵심적인 분석 틀을 이룬다.

2) 본 논문은 마수미의 논의를 따라 정동을 의미화 이전의 신체적 강도와 감응의 차원으로, 감정(emotion)을 사회적·언어적으로 조직된 상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사라 아메드(Sarah Amed)의 논의와 접속되는 지점에서는 감정과 정동이 상호 침투하는 과정 역시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간극을, '거짓말'이라는 우회적 말하기가 청자의 조건을 구성하고, 침묵·멈춤 같은 무대적 수행이 장면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 속에서 매개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빌리의 주체화를 '완성된 해방'으로 읽기보다, 정동적 침묵과 수행적 말하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균열의 순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의 침묵은 수동적 결핍이 아니라 조롱의 언어에 대한 전략적 거부이며, 그의 거짓말은 사실의 왜곡임과 동시에 존재 조건을 폭로하는 역설적 증언이다. 이 과정에서 빌리는 내러티브 보철물로 소비되던 장애의 위치를 흔들며, 말해지는 대상에서 말하는 주체로 이동하려는 시도를 수행한다.

이처럼 『이니쉬만의 크리플』은 장애 서사를 전복하지는 않지만 그 내부에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장애를 동정이나 극복의 도식으로 환원하는 기존의 재현 방식을 내부에서 교란하며, 침묵과 말하기 사이에서 진동하는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빌리의 침묵과 거짓말을 '정동적 주체화'의 과정으로 재독해하고자 한다. 이때의 '정동적 주체화'란 언어를 통한 완결된 자기 서술 이전에 신체적 감응과 정동의 흐름 속에서 주체의 위치가 미세하게 재배치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서사적 자기완성이나 정체성의 확정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위치 이동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부여한 존재의 위계를 교란하는 윤리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빌리의 침묵, 시선 회피,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수행은 완결된 자기 선언이 아니라, '크리플 빌리'라는 명명과 응시의 질서가 요구하는 자리에서 비껴나기 시작하는 정동적 흔들림으로 읽힌다. 본 논문은 바로 이 흔들림을 주체화의 계기로 사유하며, 이를 위해 본론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공동체의 낙인과 응시, 그리고 명명 행위를 중심으로 빌리의 장애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고정되는지를 정상성 비판 및 내러티브 보철물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이어 빌리의 침묵을 결여가 아니라 정동의 수행성으로 재해석하고, 연극 장르의 시간성과 무대 지시를 고려하여 말 이전의 감각이 장면을 어떻게 지연시키며 균열을 발

www.kci.go.kr

생시키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리미널리티(liminality)와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빌리의 몸이 공동체 내부에서 보호와 애도의 범주로부터 유예·배제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를 '회복/죽음'이라는 규범적 해결의 압력과 벌거벗은 생명의 조건을 통해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죽어간다는 거짓말이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말할 자리를 박탈당한 존재가 청자를 구성하며 증언의 가능성을 감행하는 우회적 말하기로 작동함을 논증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니쉬만의 크리플』이 장애 재현을 완결된 윤리적 전환으로 봉합하기보다 불완전한 청취와 윤리적 균열이 지속되는 장으로 남겨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 명명·낙인·응시와 장애 정체성의 구성

『이니쉬만의 크리플』에서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차이가 아니라, '정상성'(normalcy)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명명되며, 재현의 관습 속에서 서사적 기능으로 고정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즉, 장애는 주어진 상태라기보다 사회적 규범과 해석의 체계 속에서 생산되는 범주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장애학의 정상성 비판 논의를 중심으로, 빌리의 몸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범주화되고 '재현의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

현대 장애학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정상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레너드 J. 데이비스(Lennard J. Davis)는 '정상'이라는 개념이 19세기 통계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역사적 산물임을 지적하며, "정상성은 장애인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3). 『이니쉬만의 크리플』에서 빌리는 '크리플 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신체적 결함이 곧 그의 정체성이 된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이름이 신체적 낙인으로 대체되고, 장애가 통계적 평균에서 벗어난 위험 요소로 범주화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리플'이라는 명명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www.kci.go.kr

정상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상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존재하고, 비정상은 명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빌리가 '크리플 빌리'로 호명되는 순간, 그는 공동체의 보편적 범주에서 이탈한 존재로 구획되며, 그의 신체는 차이를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전환된다. 작품 초반, 빌리와 조니(Johnny)의 날카로운 대화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 빌리: 쓸데없이 비위나 맞추지 마세요.
> 조니: 비위 맞춘다고, 그랬냐, 절름발이 빌리?
> 빌리: 그리고 저를 '절름발이 빌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 조니: 왜? 네 이름이 빌리고 너 절름발이잖아? (McDonagh 7)

조니의 대사는 비장애인이 장애를 통해 개인 전체를 환원하고 고정하는 언어적 폭력을 보여준다. 이름은 자기를 규정하고 세계에 호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적 권리지만, 빌리에게 부여된 것은 고유명이라기보다 신체적 상태를 가리키는 범주이다. '크리플 빌리'라는 호명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를 공동체의 보편적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설명해야 할 문제적 몸'으로 설정하는 정체성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현실은 문학 속에서 장애가 기능하는 방식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명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분류 체계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평균을 기준으로 구성된 정상성은 권력과 결합된 규범으로서 작동한다. 이는 빌리의 주체화가 단순한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빌리는 자신을 "마을의 고아, 마을의 절름발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77)라고 표현하며, 공동체에 의해 부여된 타자화된 정체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빌리의 삶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이어지며, 그의 주체성 형성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자기 인식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의 시선이 내면화된 결과라는 점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빌리는 스스로를

www.kci.go.kr

주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언어는 사실상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부여해 온 명명의 재인용에 가깝다.

공동체 인물들의 조롱과 혐오는 이러한 낙인을 더욱 공고히 한다. 헬렌(Helen)은 한 번도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빌리의 말에 "당연히 키스 한 번 못 해봤겠지. 넌 생김새도 웃긴 절름발이잖아"(77)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그를 비웃는다. 바틀리(Bartley) 역시 빌리의 진지한 연기에 대해 "방금 그 대사 웃겼는데, 크리플 빌리. 한 번 더 해봐"(63)라며 그의 진지함을 희화화한다.

이처럼 빌리는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인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공격당하고 비인간화된다.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에 따르면 낙인이란 "심각하게 불명예를 안기는 속성"으로, 개인의 사회적 자아를 "손상된 정체성"으로 전락시킨다(11). 빌리의 장애는 고프만이 제시하는 신체적 낙인의 전형적 사례로서 그를 '정상인'과 구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다(13–14). 그리고 '크리플 빌리'라는 호명은 이러한 신체적 결함을 그의 고유한 이름에 영구적으로 결부시키면서 인격을 지워버리는 낙인 효과를 낳는다.

빌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의 장애를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은 헬렌과 빌리의 대화에서 더 극단적이고 선명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 헬렌: 이모들은 빌리 엄마 아빠가 자살했을 때 걔를 맡아준 거잖아. **걔가 절름발이로 태어났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런 거지.**
> 빌리: 자살한 거 아니야.
> 헬렌: 아 그래, 그래. . .
> 빌리: 파도가 심한 날, 배 타다 물에 빠진 것뿐이야.
> 헬렌: 그래? 근데 왜 그런 날 바다에 나갔는데? 게다가 밤이었잖아?
> 빌리: 미국 본토로 가려고 그랬어.
> 헬렌: **아니지, 널 피해서 도망치려던 거였지.** 멀리든 죽음이든, 뭐든 상관없이 말이야.
> 빌리: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때 너도 나처럼 애기였잖아.
> 헬렌: 나 옛날에 조니퍼틴 아저씨한테 치즈 감자 하나 줬는데,

> 그 얘기 해줬어. 그때 너를 안고 있었던 사람도 그 사람이었다며, 물가에서?
> 빌리: 그 밤에 내 부모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아저씨도 몰랐을 거야. 그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 헬렌: 그럼 왜 두 사람이 몸에 돌자루를 묶고 있었겠어?
> 빌리: 그거야말로 헛소문이야. 내 부모님이 돌자루를 묶었다는 건, 조니퍼턴 아저씨도 헛소문이라고 인정했어. . .
>
> (15 필자 강조)

에일린과 바틀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빌리의 출생과 부모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과 오해, 그리고 그것이 장애가 있는 인물에게 어떻게 정체성의 낙인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헬렌은 빌리가 '절름발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살했다고 단언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비극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나 모욕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적 재난이나 실패의 기호로 여기는 통념의 반영이다. 빌리는 이에 맞서 부모의 죽음을 사고사로 해석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그의 반복적 해명과 방어적 어조는 그가 이미 이러한 소문과 시선의 압력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사건의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조 자체에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불행이나 타자의 고통으로 환원하는 비극적 서사(narratives of misfortune)의 전형이다. 헬렌의 주장 속에서 장애는 단순한 신체 조건이 아니라 가족 파멸의 원인으로 상징화된다. '두 사람이 몸에 돌자루를 묶고 있었다'는 소문은 장애인을 사회적 재난의 상징으로 상상하는 집단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이 소문은 빌리의 부모가 왜 죽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빌리의 장애를 사건의 원인으로 배치함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공동체적 불행의 기원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빌리의 장애를 하나의 신체적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과 가족의 파탄을 설명하는 해석적 장치로 사용한다. 이때 장애는 개인에게 속한 특성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과 공동체의 불안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상상되며, 빌리

는 고통을 겪는 주체가 아니라 고통을 유발한 존재로 전도된다.이 상상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장애를 제거되어야 할 결함으로 간주하는 폭력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폭력성은 단지 헬렌의 말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빌리의 몸을 보고 해석하고 명명하는 방식 전체에 놓여 있다. '크리플 빌리'라는 호명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빌리의 몸을 '문제적 몸'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의 응시는 신체적 차이를 식별하고, 명명은 그 차이를 언어적으로 고정하며, 낙인은 그 고정된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으로 굳힌다. 따라서 빌리에게 가해지는 소문과 조롱은 단순한 언어폭력이 아니라, 명명·낙인·응시가 결합하여 장애 정체성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로즈마리 갤런드-톰슨(Rosemarie Garland-Thomson)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응시는 장애를 단지 인간 형상의 또 하나의 변형이 아닌 절대적인 차이의 상태로 만들어낼 뿐 아니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주체 위치들 간의 권력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장애 정체성을 구성한다. ("Politics" 57)

응시는 단순한 '보기'가 아니라, 무엇을 문제로 규정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해석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시선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Garland-Thomson, *Staring* 15)로 작동하며,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분리하고 위계화한다. 그 결과 공동체의 응시와 해석 속에서 빌리의 정체성은 '절름발이'라는 범주로, 그의 몸은 비극적 서사의 기호로 고정된다.

헬렌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돌자루' 소문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장애인을 '없애야 할 존재'로 상상하는 폭력적 상징이 된다. 장애의 시각성은 "기대 가능한 배경 속에서 손상의 단일한 흔적을 두드러지게 배치함으로써" 작동하며, 이러한 응시는 장애인의 몸을 항상 이질적 대상으로 표지하기 때문이다(Garland-Thomson, "Politics" 60). 반복되는 낙인은 빌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억압의 구조임과 동시에, 자신

www.kci.go.kr

을 규정하는 언어가 외부에서 구성된 것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 인식의 지점에서 빌리의 침묵과 거짓말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응시의 권력에 개입하는 전략적 수행으로 전환되며, 그의 고통과 주체화는 신체적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신체가 사회적으로 해석·배제되는 방식 속에서 형성되는 위치 이동의 문제로 드러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조롱이 블랙코미디의 형식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헬렌과 바틀리의 언어는 폭력적이면서도 희극적으로 소비되며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때 웃음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장애를 '희화화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치가 된다. 가령 헬렌이 빌리의 부모가 돌자루를 매달고 자살했다는 소문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장면에서, 대사는 잔혹한 농담으로 제시되어 관객의 웃음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장애인을 제거의 대상으로 상상하는 폭력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빌리의 침묵과 정지는 그 웃음을 매끄럽게 완성시키지 않는다. 웃음이 멈칫하는 순간 관객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웃고 있었는지를 자각하게 되며, 바로 그 불편함은 윤리적 균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폭력과 혐오를 통해 웃음을 생산하는 블랙코미디의 메커니즘은 장애 재현의 윤리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층 더 급진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맥도나의 블랙코미디는 장애를 전복적으로 해방시키기보다, 웃음과 불편함이 교차하는 순간을 통해 장애 재현을 둘러싼 관객의 응시와 윤리적 위치를 흔드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Ⅲ. 멈춤과 지연의 수행성: 정동과 장애의 시간성

타자화된 존재로 그려지는 빌리는 공동체 안에서 짧고 절제된 응답을 보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최소화한다. 그의 말없는 신체 반응은 단순한 무반응이나 위축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롱과 풍문에 대한 언어적 동참을 거부하면서 비장애 중심 언어 질서에의

www.kci.go.kr

동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적 수행으로 작동한다. 정동은 의미로 조직되기 이전에 신체를 통과하는 감응의 흐름이자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가능성의 차원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빌리의 반복되는 침묵, 헬렌이나 조니의 위협 앞에서의 시선 회피, 소를 바라보는 습관 등은 감정을 서사적으로 정리해 말로 응답하는 대신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감각의 강도를 장면 안에 남겨두는 정동적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빌리가 공동체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보다 바깥의 소를 바라보는 반복적 행위는, 그가 인간 공동체의 언어적 교환에서 이탈해 다른 감각적 대상으로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다른 인물들이 빠르게 말을 주고받는 동안 빌리의 시선은 인간 관계망 바깥의 대상으로 향하며, 그 순간 그의 몸은 공동체의 대화 리듬과 어긋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긋남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관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적 지연과 정적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빌리의 시선은 말보다 먼저 몸의 방향을 바꾸며, 관객은 그 정지된 시선을 통해 공동체 내부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그의 존재 방식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연극이라는 장르적 특수성은 이러한 침묵에 수행적 의미를 부여한다. 희곡에서의 침묵은 텍스트의 공백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배우의 몸짓과 호흡, 장면의 정적을 통해 물질적으로 구성되는 사건 그 자체가 된다. 빌리가 말을 멈추는 순간 극의 리듬은 지연되고, 공동체의 농담은 자연스럽게 완결되지 못하며, 이 지연은 관객의 감각을 붙들어 두는 시간적 틈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극적 효과가 아니라 장애 신체가 규범적 시간성을 교란하는 수행으로 읽힐 수 있다. 앨리슨 케이퍼(Alison Kafer)는 “‘크립 타임(crip time)’은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시계에 맞추도록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계를 장애인의 몸과 마음에 맞추도록 구부리는 시간성”(27)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빌리의 멈춤과 침묵은 단순한 발화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가 요구하는 매끄러운 대화 리듬을 어긋나게 만드는 수행이다. 특히 맥도나의 빠르고 냉소적인 대사 리듬 속에서 반복적으로 삽입되

www.kci.go.kr

는 빌리의 정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정상적 호흡과 템포로부터 이탈한 시간을 체감하게 만든다.

예컨대 빌리가 보비에게 편지를 건네는 장면에서 삽입된 "(잠시 멈춘다)"(26)라는 무대 지시는 단순한 의미론적 공백이 아니다. 이 정지는 빠르게 이어지던 대화의 흐름을 갑작스럽게 늦추며 장면의 리듬 자체를 교란한다. 특히 보비가 편지를 읽은 뒤 표정이 어두워지고, 빌리가 그 반응을 기다리는 짧은 침묵의 순간은 배우의 호흡과 몸의 긴장을 전면화한다. 관객은 다음 대사가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빌리의 망설임과 불안, 그리고 승인받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 이전의 감각 차원에서 먼저 경험하게 된다. 이때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몸이 다음 말을 감당하기 위해 머뭇거리는 수행적 시간으로 작동한다.

이때의 침묵은 결핍이라기보다 잉여에 가깝다. 말로 환원되지 못한 감각의 강도는 사라지지 않고 장면 안에 남아, 공동체의 감정 코드—웃음, 연민, 체념 등—에 즉각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잔여를 형성한다. 그는 농담을 완성하지 않고, 연민을 유도하지 않으며, 체념을 수행하지도 않는다. 이 미결정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채 머물게 한다. 사라 아메드(Sarah Ahmed)는 『감정의 문화정치』(*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2004)에서 감정이 개인의 내면 상태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감정들이 개인과 집단의 '표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1)고 설명하며, 감정이 타자 및 사물과의 접촉과 마주침, 곧 관계 맺기의 방식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개인 및 집단의 '표면'을 구성하며 주체의 위치를 배치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특정한 몸을 '연민의 대상'이나 '슬픔의 주체'로 고정시키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빌리의 침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공동체가 기대하는 감정의 표면—즉, 불쌍함을 수행하고 체념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자신을 맞추지 않음으로써, 감정이 배치해 놓은 위치 자체를 거부한다.

www.kci.go.kr

이때 감정의 표면을 이루는 힘은 개별 심리뿐 아니라, 어떤 몸이 무대 위에서 ‘중립적’이고 ‘정상적인’ 몸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규범적 상상력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캐리 샌달(Carrie Sandahl)은 배우 훈련에서 요구되는 ‘중립(neutral)’이 사실상 비장애인의 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중립”이라는 은유의 다양한 형태에는 “신체적 차이의 위치에서 캐릭터를 구축할 수 없다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26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빌리의 몸은 단순히 서사의 대상이 아니라, 규범적 신체를 전제하는 무대의 리듬과 훈련된 연기 관습 자체를 교란하는 물질적 현존으로 기능한다. 그는 빠른 응답과 매끄러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적 리듬 속에서 반복적으로 멈추고 지연하며, 바로 그 느려진 시간 속에서 관객은 장애 몸이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무대의 시간성과 감각 질서를 재조직하는 수행적 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빌리의 침묵은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정동적 감응과 감정 규범 사이를 가로지르며 감정이 작동하는 권력 구조에 균열을 가하는 정치적 수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해지는 존재로 환원되기를 거부하고, 공동체가 기대하는 감정 표현의 질서를 지연시킨다. 그러나 이 침묵은 정지된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침묵 속에 축적된 정동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언어화의 경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면화되며, 특정한 계기 속에서 발화를 촉발하는 조건으로 전환된다.

극 후반부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빌리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순간으로 나타난다. 이 장면은 그동안 언어화되지 못했던 정동이 불완전한 언어로 드러나는 계기이며, 침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의 조건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난 평생 미국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었어요. 만약 그들이 날 캐스팅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절 원하지 않았어요. 포트로더데일 출신의 금발 청년을 대신 뽑았죠. 그는 전혀 불구가

> 아니었지만, 그 미국인 감독은 '차라리 연기를 잘하는 정상인을 쓰는 게 연기 못하는 장애인보다 낫지'라고 했어요. 물론, 더 심하게 말했지만요. (66)

빌리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정동의 언어화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그 실패가 오히려 고통의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빌리가 평생 미국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고 말하는 대사는 그가 이니쉬만에서 경험해 온 깊은 소외감과 공동체 내부의 타자화된 시선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압축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는 배제된다. 감독은 실제 장애인인 빌리보다 '연기 잘하는 비장애인'을 선택하고, "연기를 못하는 장애인보다 차라리 연기를 잘하는 정상인을 쓰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그의 존재를 또 한 번 지워 버린다. 이 장면은 빌리가 이니쉬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바깥 세계에서도 진정한 수용의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장애인의 배제가 어떻게 문화산업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조명한다.

이 장면은 빌리가 이니쉬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바깥 세계에서도 진정한 수용의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장애인의 배제가 어떻게 문화산업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조명한다. 장애 재현의 문제는 "누가 장애를 설명하고, 그 설명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이며"(Shakespeare 195), 이 영화 산업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몸과 목소리가 배제된 채 비장애인의 재현 가능성만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된다. 감독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실제 장애인의 경험을 삭제한 채 비장애인의 연기력을 '보다 나은 선택'으로 위계화한다.

빌리는 '기형적으로 흥미로운' 존재로 소비될 뿐 스스로 말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며, 그의 발화는 고통의 총체를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간결하고 중단된 언어이다. 그의 고백은 언어로 완전히 조직되지 못한 감각의 잔여를 드러내며, 정동이 의미화의 과정 속에서 완전히 감정으로 번역되지 못한 채 머무는 지점을 보여준다. 마수미가 정동을 의미화 이전의 강도와 신체적 감응의 차원에서 사유한다면, 이

www.kci.go.kr

장면에서 빌리의 발화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이라기보다 말해지지 못한 감각이 언어의 표면에 잔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빌리가 미국 감독의 말을 인용하며 “물론, 더 심하게 말했지만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끝내 발화하지 못한다. 이 중단은 말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통을 완결된 서술이 아니라 침묵과 공백의 형태로 장면 안에 남겨둔다. 관객은 끝내 이어지지 않는 말을 기다리는 긴장과 어색함 속에서 빌리의 고통을 감각적 여운으로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동의 수행성이 드러난다.

Ⅳ .리미널리티와 생명정치: 유예된 삶과 조건적 애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빌리의 침묵과 거짓말은 공동체의 응시와 조롱에 대한 단순한 수동적 반응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말해지지 못한 감각의 잔여를 드러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말할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수행으로 읽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차별받는 장애인이라는 점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이 가시화될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의 관심과 보호를 일시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본 장은 이러한 유예된 삶의 구조를 리미널리티와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빌리의 생명이 왜 죽음의 가능성이 가시화될 때에야 조건적인 애도의 대상으로 승인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침묵과 불완전한 발화 사이를 오가는 빌리의 위치는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포함되지 못하는 경계적 상태를 드러낸다. 이러한 경계성은 로버트 F. 머피(Robert F. Murphy)가 규정한 장애인의 존재론적 리미널리티 개념과 맞닿아 있다. 머피는 장기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아프지도, 건강하지도 않으며,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아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의 바깥도 아니고 완전히 안에 속한 것도 아닌 존재”(112)로 묘사하며, 장애가 ‘회복/죽음’으로 이동하는 전이 상태가 아니라 지속되는 사회적 유예 상태로 남는다고 본다. 이 유예 상태는

곧 공동체가 보호와 책임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후 논의할 생명정치적 배제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적 위치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상뿐 아니라 문화적 재현 방식에서도 반복된다. 제이슨 도와트(Jason Dorwart)는 "무대 위에서 연기된 장애인의 몸은 죽음이나 회복으로 해결되기를 기대받는다"(37)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회복은 장애를 극복하는 내러티브의 핵심 요소이며, 극적 서사에서 '장애 극복'은 극의 진행을 이끄는 중심 장치가 된다. 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의 희망조차 부재한 경우, "극적 서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죽음"(Dorwart 38)이 된다. 프랭크가 말하는 퀘스트 서사가 질병 경험을 하나의 '여정'으로 조직하여 의미 있는 회복 내러티브를 구성하려는 시도라면, 『이니쉬만의 크리플』에서 빌리의 침묵과 거짓말은 바로 이 '회복/죽음'이라는 이분법을 비켜난 채 경계적 삶을 끝내 봉합하지 않는 서사적 리미널리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이분법은 단지 극적 플롯의 관습이 아니라, 어떤 삶이 지속될 자격을 갖는지(혹은 갖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규범의 문화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서사적 해결의 요구는 특정 몸을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Foucault 138)의 감각적·정서적 배치와 맞물린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장애 재현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식의 생명정치(biopolitics) 문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빌리의 이모들이 표현하는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 에일린: 그 한쪽 나쁜 팔은 절대 낫지 않아.
> 케이트: 네가 죽는 날까지 그대로겠지.
> 에일린: 불쌍한 빌리를 좀 생각해야겠어. 팔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잖아.
> 케이트: 빌리는 문제도 참 많지.
> 에일린: 빌리는 백 가지는 되는 문제가 있어. (1-2)

이모들은 빌리의 몸이 평생 치유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그의 삶 전체를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고통과 문제의 연속으로 상상한다.

죽음은 여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아니라, 어차피 고쳐지지 않을 몸이 도달할 '자연스러운 끝'으로 암묵적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보비는 섬을 떠날 수 있게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는 빌리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그를 위험한 존재나 명시적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나중에, 네 발이 좀 펴지면"(24)이라는 조건부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빌리의 현재 삶을 잠정적이고 미완의 상태로 유예한다.

보비는 빌리를 공동체 바깥으로 완전히 추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빌리의 미래를 '회복 이후'라는 조건 속에 유예함으로써, 현재의 장애 몸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부 승인과 방치는 푸코가 말한 생명정치적 권력의 작동 방식—즉 생명을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가능성을 분배하는 메커니즘—과 연결된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은 특정 생명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보다 보호의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작동한다. 빌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돌봄과 기대, 보호의 대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외된다. 그의 삶은 관리의 대상이기보다는 방치의 대상에 가깝다. 빌리가 이니쉬만을 떠나자, 공동체 사람들은 그의 부재와 죽음의 가능성을 무심하게 언급한다. 헬렌은 "나는 크리플 빌리가 할리우드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자기 한테 돌아갈 자격도 없는 예쁜 여자 자리를 차지해 놓고,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48)라고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바틀리는 "차라리 지금처럼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있는 게 낫지. . . 기적이 일어나서 할리우드에서 크리플 빌리가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48)라고 말하며 무심한 모습을 보인다.

이때 공동체가 빌리의 생사를 '애도'가 아니라 '소문'의 차원에서 소비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 상실로 경험되기보다는 흥밋거리와 농담의 소재로 유통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명의 가치가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드러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어떤 삶들은 애도 가능하고, 다른 삶들은 그렇지 않다. 애도 가능성의 차등적 배분이 어떤 주체가 애도되어야 하는 존재인지,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결정한다"고 지적한다(*Precarious* xix). 애도 가능성(grievability)은 단순히 죽음

www.kci.go.kr

이후의 감정 반응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그 삶이 인간적 가치와 보호 가능성을 부여받았는가를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빌리는 공동체의 보호와 관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예되며, 그의 삶은 완전히 애도 가능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애도 불가능성은 추상적 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빌리가 몸을 두고 있는 구체적 공간과 그가 상상하는 초월적 질서 속에서도 반복된다. 빌리는 "지저분한"(52) 할리우드 호텔방에서 "병든 몸으로 비틀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침대 위로 기어오른다"(53).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절름발이 같은 애들도 천국에 들여보내 줄까, 정말 궁금해. 그냥 천국 풍경이나 망쳐버리는 거 아닐까?"(53)라고 자조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연민이 아니라, 존재 승인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다. 천국이라는 초월적 질서조차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은, 생명 가치의 위계가 종교나 도덕의 차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V. 우회적 말하기와 증언의 조건

조건적 생명의 위치 속에서 빌리의 거짓말은 단순한 기만 이상의 의미를 획득한다. 공동체의 보호와 애도에서 유예된 그는, 자신이 곧 죽어간다는 서사를 통해서만 타인의 관심과 응답을 호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의 거짓말은 배제된 생명이 자신을 '가치 있는 생명'으로 재배치하려는 수행이다. 빌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서만 공동체의 관심과 보호를 호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그의 장애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무관심했으면서도, 죽음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버틀러의 "애도 가능성은 '중요한 삶'의 전제 조건이며, 어떤 삶이 상실되었을 때 그 상실이 문제로 여겨질 수 있을 때에만 그 삶의 가치가 드러난다"(*Frames* 14)는 논의는, 애도 가능성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발생

www.kci.go.kr

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삶이 애초에 보호와 가치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정치적 지표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애도 가능성은 사후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그 삶이 얼마나 인간적인 가치와 보호 가능성을 부여받았는가를 드러내는 기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빌리는 살아 있는 장애인의 몸으로서는 공동체의 응답을 충분히 호출하지 못하며, 오직 '죽어가는 몸'이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일시적인 애도 가능성의 범주 안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도 가능성마저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빌리가 실제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의 관심 역시 쉽게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삶은 보호와 배제 사이의 불안정한 경계 위에 놓인다.

이러한 경계적 위치는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제시한 '벌거벗은 생명'(bare life) 개념과 접속된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죽일 수 있으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존재"(8)로 정의하며, 법과 공동체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으로 환원된 상태를 설명한다. 이는 제거될 수는 있으되 애도되거나 의미화되지 않는 생명의 형식을 가리킨다. 빌리는 완전한 의미의 호모 사케르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보호와 애도의 체계 안에 포함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예된다는 점에서 벌거벗은 생명의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의 생사는 애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문의 대상이 된다. 이 지점에서 그의 삶은 정치적·법적 권리뿐 아니라 감정적 승인으로부터도 유예된 생명으로 드러난다. 푸코가 말한 생명관리 권력이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은 그 관리 체계 밖으로 밀려난 생명의 잔여를 가리킨다. 빌리는 바로 이러한 배제의 구조 속에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호와 애도의 범주에서 이탈한 존재로 위치한다.

결국 정상성의 명명과 생명 가치의 위계화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둘러싼 동일한 배제 구조의 연쇄이다. 빌리의 말하기는 그 연

www.kci.go.kr

쇄를 전복하기보다 연쇄의 조건을 가시화하고 재질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인물이 서사에 개입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주체적 시도에 해당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장애의 삶을 '회복/죽음'이라는 규범적 결말로 정리하려는 서사 관습을 배경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맥도나는 그러한 '해결'을 곧장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의 말하기를 통해 그 규범을 문제화한다.

이러한 맥도나의 전략은 장애를 극복의 서사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의미화의 과정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프랭크의 퀘스트 서사와 상응한다. 프랭크에 따르면 퀘스트 서사는 질병을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말하고자 선택하는 순간 형성되는 서사적 형식이다. 질병은 이때 단지 견뎌야 할 상태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며 마주하는" 여정의 계기가 된다(115–16). 이러한 틀에서 볼 때 빌리는 회복이나 극복을 통해 '정상'의 범주에 편입되기보다, 침묵과 자기폭로, 그리고 언어화의 실패를 거치며 자신의 위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의 정동과 행위는 억압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 억압을 가시화하는 저항의 형식이며, 말하기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전환은 정동에서 언어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기보다,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잔여를 남긴 채 청자를 호출하는 수행으로 나타난다. 빌리는 공동체의 시선에 순응하기보다 죽어간다는 거짓말을 통해 자기 이야기의 중심에 서고자 시도하며, 이 말하기는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상태에서 서사화의 과정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로 기능한다. 프랭크의 퀘스트 서사가 고통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면, 빌리의 말하기는 그러한 의미화로 완전히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의 발화는 고통을 서사적으로 극복하거나 통합하기보다, 끝내 말해질 수 없는 감각과 침묵의 잔여를 남긴 채 타자 앞에서 수행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펠먼과 라우브의 증언 개념은 중요한 보완적 틀을 제공한다. 이들에게 증언은 완전한 의미화에 도달한 경험의 재현이 아니라, 재현 불가능성을 안은 채 타자

www.kci.go.kr

에게 말을 건네는 수행적 사건이다. 따라서 빌리의 거짓말은 단순한 자기서사의 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말해질 수 없는 고통을 타자에게 전달하려는 증언적 수행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절름발이라는 영구적인 손상을 지닌 빌리는 폐렴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통해 섬을 떠나 배우가 되고자 한다.

> 빌리: **맥셰리 박사님한테 받은 편지예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 (편지를 반쯤 읽은 보비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는 빌리를 힐끗 쳐다본 뒤, 계속 읽는다.)
> 보비: 이모들이 네가 가는 걸 알면 속상해할 텐데.
> 빌리: **그럼 그게 이모들 인생인가요, 제 인생이지.** 거기 가서 편지라도 보낼게요. 아, 어차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갈지도 몰라요. 저 금방 지루해하거든요. (잠시 멈춘다) 태워주실래요?
> (25-26 필자 강조)

이 거짓말은 단지 섬을 떠나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없어도 되는 존재'로 취급되어 온 자기 위치에 대한 반작용이자, 말하기를 통해 그 위치를 재배치하려는 수행이다. 따라서 빌리의 발화는 경험적 사실의 차원에서는 허위에 속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우회적 형식을 통해 말해질 수 없었던 존재 조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황의 진실을 수행한다. 빌리는 점차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는 퀘스트 서사와 증언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사적 전환점이 된다.

펠먼과 라우브에 따르면 증언은 단순한 고통의 재현이나 사실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증언은 자기 내면의 타자성을 회복하는 존재론적 변화의 계기이자 자기 회복과 공동체적 관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 궁극적으로, 모든 증언의 과정—그것이 단속적이든, 지속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 전달이나 사실 확립이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증언을 살아내는 경험 자체, 즉 증언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그 체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증언이란, 화자(즉, 생존자)가 스스로 증인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내면의 '너(thou)'를 재구성(reconstitute)하며, 그를 통해 자기 안에 다시 증인 또는 청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85 필자 강조)

물론 빌리의 거짓말을 펠먼과 라우브가 논의한 증언과 동일한 층위에 놓을 수는 없다. 펠먼과 라우브의 증언 개념은 홀로코스트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폭력과 생존자의 말하기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빌리의 발화를 증언으로 읽는 일은 역사적 사건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질 수 없었던 고통이 타자 앞에서 우회적으로 발화되는 형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때 빌리가 증언하는 것은 폐렴이라는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와 애도의 대상으로 승인되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빌리의 발화는 바로 이러한 관계적 말하기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지점에서 기능한다. 공동체 안에서 조롱과 응시의 대상으로만 위치 지워졌던 그는,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타인의 응답을 요청하고 자신을 하나의 말하는 주체로 다시 위치시키고자 한다. 발화의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발화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시화하려는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말하기는 완전한 자기 회복이나 투명한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고통은 거짓말이라는 우회적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바로 그 지점에서 말해질 수 없는 고통의 잔여가 증언의 형태로 남게 된다.

증언을 법정적 의미의 사실 보고로 한정한다면 빌리의 발화는 증언이 될 수 없다. 그는 죽어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진술은 경험적 사실의 차원에서 허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언을 사실의 정확성에 의해 판단되는 행위가 아니라 말해질 수 없었던 존재 조건을 타자 앞에서 감행하는 수행적 사건으로 재정의한다면 논의의 지평은 달라진다. 이제 빌리의 거짓말은 의학적 진실을 진술하는 행위가

www.kci.go.kr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미 '없어도 되는 생명'으로 취급되어 온 자신의 사회적 소멸 상태를 가시화하는 수행으로 작동한다.

증언은 언제나 타자의 청취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보비에게 편지를 건네며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요구하는 순간, 빌리는 자신의 말을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전제하며 청자의 존재를 요청한다. 동시에 이 장면에서 보비는 단순한 정보의 수신자가 아니라, 빌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침묵을 지킬 것인가, 혹은 공동체의 질서로 되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윤리적 청자로 위치 지워진다. 이러한 선택의 요구는 청자를 이해의 위치가 아니라 책임의 위치로 이동시키며, 증언이 관계를 구성하는 윤리적 사건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작품은 빌리의 말하기가 공동체에 의해 완전히 승인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빌리의 죽음 가능성이 언급되는 순간에도 공동체 인물들은 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의 존재를 가볍게 소비한다. 바로 이러한 제한적 응답과 불완전한 청취의 상태가 작품의 윤리적 긴장을 형성한다. 증언은 성공적으로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실패 가능성을 내장한 채 감행되는 수행이며, 빌리의 거짓말은 공동체의 감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구조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니쉬만의 크리플』은 장애 재현의 해방을 제시하기보다, 말하기와 청취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조건을 드러내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이니쉬만의 크리플』을 장애를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으로 재독해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몸이 명명, 낙인, 응시, 그리고 생명 가치의 위계 속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분석한다. 작품 속 빌리는 '크리플 빌리'라는 호명과 공동체의 조롱을 통해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결함으로 환원되며, 그의

존재는 타인의 언어와 해석에 의해 지속적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작품은 장애를 둘러싼 공동체의 응시와 낙인 구조를 드러내면서도 그러한 규범적 해석이 빌리의 침묵과 발화를 통해 균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작품은 장애를 단순히 서사를 추동하는 장치나 비극적 상징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빌리의 침묵은 결여의 표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조롱 언어를 지연시키는 수행으로 기능하며, 정동의 차원에서 감정 규범을 교란한다. 그는 '불쌍함'이나 '웃음거리'의 위치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거짓말과 자기폭로를 시도한다. 이러한 발화는 사실의 전달로 환원되지 않는 고통을 타자에게 들리게 하려는 시도로 나타나며, 회복이나 치유로 귀결되는 완결된 서사가 아니라 언어화의 중단과 공백을 내장한 채 수행된다.

정동과 증언 사이의 긴장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빌리의 주체화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정동이 언어 이전의 강도로 잔존할 때, 증언은 그 강도를 완전히 번역하지 못한 채 타자에게 건네지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의 주체화는 확정된 정체성의 획득이 아니라, 공동체가 배치한 위치로부터 미세하게 어긋나는 이동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니쉬만의 크리플』은 장애 재현을 윤리적 전환의 성취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의 삶을 '회복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해결로 봉합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삶이 말해질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드러낸다. 작품은 장애인을 완결된 주체로 복원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전복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침묵과 말하기, 정동과 규범, 배제와 응답 가능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통해 장애가 사회적으로 이해되고 의미화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장애는 동정이나 극복의 도식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말해질 수 없음이 말하기로 이행하는 임계점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이 균열은 해소되어야 할 결함이 아니라, 관계가 재배열되는 순간이다. 빌리의 발화는 단순한 자기표현이 아니라 청자를 구성하는 수행이며, 그 수행은 청자를 책임의 위치로 호출한다. 증언은 여기서 사실의 보고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을 타자 앞에서 감행하는 사건으로 나

www.kci.go.kr

타난다. 결과적으로 『이니쉬만의 크리플』은 장애를 해방의 서사로 종결하기보다, 말하기와 청취의 조건 자체를 불안정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로 남는 것이다.

《연세대》

www.kci.go.kr

인 용 문 헌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8.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2004.

Butler, Judith.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Verso, 2009.

_____.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2004.

Davis, Lennard J. "Constructing Normalcy: The Bell Curve, the Novel, and the Invention of the Disabled Bod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Ed. Lennard J. Davis. 5th ed. New York: Routledge, 2016. 3−19. Web. 18 Dec. 2025.

Dorwart, Jason. *The Incorporeal Corpse: Disability, Liminality, Performance*. Diss. U of California, San Diego, 2017.

Felman, Shoshana, and Dori Laub. *Testimony: Crises of Witnessing in Literature, Psychoanalysis and History*. New York: Routledge, 1992.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90.

Frank, Arthur W.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Chicago: U of Chicago P, 1995.

Garland-Thomson, Rosemarie. "The Politics of Staring: Visual Rhetorics of Disability in Popular Photography." *Disability Studies: Enabling the Humanities*. Ed. Sharon L. Snyder, Brenda Jo Brueggemann, and Rosemarie Garland-Thomson.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02. 56−75. Web.

www.kci.go.kr

18 Dec. 2025.

_____. *Staring: How We Look*. New York: Oxford UP, 2009.

Goffman, Erving.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0.

Kafer, Alison. “Time for Disability Studies and a Future for Crips.” *Feminist, Queer, Crip.* Bloomington: Indiana UP, 2013. 25−46. Web. 9 May. 2026.

Massumi, Brian.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Duke UP, 2002.

McDonagh, Martin. *The Cripple of Inishmaan*. London: Methuen Drama, 1997.

Mitchell, David T., and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U of Michigan P, 2000.

Murphy, Robert F. *The Body Silent: The Different World of the Disabled*. New York: Norton, 1987.

Sandahl, Carrie. “The Tyranny of Neutral: Disability and Actor Training.”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and Performance*. Ed. Carrie Sandahl and Philip Auslander. Ann Arbor: U of Michigan P, 2005. 255−68. Web. 9 May. 2026.

Shakespeare, Tom. “Disability, Culture and Identity.”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Ed. Gary L. Albrecht, Katherine D. Seelman, and Michael Bury. Thousand Oaks: Sage, 2001. 195−218. Web. 10 May. 2026.

www.kci.go.kr

저자: 이인경/연세대학교/박사과정생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zx_as@naver.com

www.kci.go.kr

원고접수일: 2026년 4월 1일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26년 5월 13일